



“새 시작을 알리며”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 후 회원들이 교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CBMC 제공

CBMC 50차 총회 개최 두상달 중앙회장 연임

“한국사회 청년문제, 교회 내 참여·연대의 공간 필요해”

한국기독실업인회(중앙회장 두상달, 이하 한국CBMC)가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전국 140여 개 한국CBMC 지회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해 전년도 사역 보고를 받고 2017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두상달 회장의 한국CBMC 중앙회장 연임이 회원들의 주대 속에 결정됐다. 이로서 두상달 회장은 앞으로 2년동안 한국CBMC에서의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강단에 오른 두상달 회장은 ‘변화와 변혁은 일회성으로 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며

“CBMC의 변화의 틀을 조금 더 견고히 하라고 주시는 기회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나라와 열방, 다음 세대를 품고 빛나는 시대의 주역, 자랑스러운 CBMC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도전적 메시지를 덧붙였다.

논산 육군훈련소 구제서 소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CBMC 정기총회를 열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또한 이곳에서 열릴 한국대회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CBMC는 2017년 사역주제를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으로 새 역사 를 만들자’로 정하고 CBMC의 오랜 관습과 정체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을 열었다.

한국CBMC는 지회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프로그램 정비와 다양한 한 강사풀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집행위원장 책임제를 확립해 팀워

크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대외협력과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등 8가지 주요 사역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지역봉사공로상, 사역공로상 등 총 6개 부문의 수상이 있었다.

▶지회창립공로상 조해용(목포예향지회), 장명선(중문지회), 전하늘(서귀포여성지회), 순문승 (153지회), 신종호(낙동지회), 서용민(빛가람지회)

▶지역봉사상 이승율(서울영동, 한국CBMC 중앙회)

▶사역공로상 이대식(여의도지회), 한국CBMC 중앙회, 김재현(연산지회), 한국CBMC 중앙회, 원혜숙(평택지회), 한국CBMC 중앙회, 손재열(반포지회), 한국CBMC 중앙회

▶공로패 정호철(강남비전지회), 한국CBMC 중앙회, 조학봉(서귀포지회), 한국CBMC 중앙회, 세라박(서울강남, 한국CBMC 중앙회)

▶모범지회상 153지회

▶모범연합회 서울남부연합회가 각각 수상했다.

또 청년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한국CBMC는 이날 연무대군인교회 건축 현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참석한 회원들은 건축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편 한국CBMC는 “가장 큰 연례 행사인 한국대회도 오는 8월 14~16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청년 선교사역의 뜻을 더욱 굳건히 하며 차세대 양육 및 선교 후원 계획을 구체화 할 전망”이라 전했다.

총회장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한국교회와 청년복지’ 주제로 사회복지 현안세미나 개최

“한국의 청년들은 지금 출구 없는 골목에서 아무런 보장 없는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최근 몇 년 간 70%가 넘는데,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은 50%를 가까스로 넘고 있다. 그나마 취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장신대 성석환 교수

나,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치열한 일시경쟁을 끊고 대학에 진학해도, 청년들은 또 다시 취업 경쟁에 뛰어들면서 사적인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통해 전망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상은 암울하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다. 지난 21일 낮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주최로 “한국교회와 청년복지”를 주제로 ‘제10회기 사회복지 현안세미나’가 열렸다. 행사에서 성석환 교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는 “한국사회의 청년문제에 대한 공공신학적 이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위 한국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지적은 성 교수의 발제 시작이었다. 성석환 교수는 “모름지기 청년의 시기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때라고 말하는 것도 사치가 되는 상황에서, 종교계를 비롯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청년 개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노동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 했다. 전자는 대부분 소위 ‘힐링’이라는 데모로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했고, 후자는 결국 최근 ‘유연고용제’와 ‘임금피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 교수는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 청년들이 처한 우리 사회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기독청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성 교수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독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신앙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독청년들은 ‘구차하기 그지없는’

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 안에서 이웃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다만, 성 교수는 “기독교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도들도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면서 “기독청년들도 현 상황의 문제들을 공적인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석환 교수는 “한국교회의 기독청년들이 더 강력한 동기, 즉 신앙에 의해 현 상태를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청년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류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기독청년을 길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가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 시대 청년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공적인 실천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성 교수는 “기독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의미가 한국사회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값싼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라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 부르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12:1),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마28:19-20)”고 했다. 이를 위해 성 교수는 “먼저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의 공간, 연대의 경험을 제공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기독청년들이 우선적으로 동시대 청년들을 위해 주도해야 할 과제”라 이야기 했다. 특히 그는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지역적 정체성과 무관할 수 없다”면서 “지역교회가 아닌 교회도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공유하는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대해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책임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그 동안 교회가 지역사회를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수행하는 복지사역의 경우, 교회의 기부장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관점으로 인해 지역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성 교수는 이런 상황이 서구에서도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경험하는 한계였다고 지적

하고, “한국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화하게 되고 공론을 형성할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더불어 성 교수는 “기성세대가 그나마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의 구성원들과 접촉할 기회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청년들은 전도에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청년부 내부에서 경험하는 종교행위가 지역사회를 통해 드러날 기회가 별로 없다”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들과 만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지역과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참여와 연대의 실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회원들을 동원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히 성 교수는 “기독청년이 ‘선교적 교회’ 관련 논의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교회 밖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들에 교회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공동체적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고 협력을 일으키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성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참여의 경험을 하려면, 먼저 기독청년들의 신앙이 무리와 세상에서 제자의 공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고, “그들에게 공론장이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의미나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신학적 관점을 갖고 공적인 역할을 위해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교회는 “기독청년들이 공적인 신앙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성석환 교수의 발표 외에도 정무성 교수(성실대학 사회복지학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청년복지 정책과 제도”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청년들이 직접 발언하는 발표의 자리도 마련되어 “도움을 구할 곳도 받을 곳도 없는 결국 혼자인가요?: 교회 안의 청년 이야기”(정인곤 기독청년아카데미 사무국장),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죠?: 청년부부와 주거문제”(이충희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생육하고 번성하라구요?: 청년취업과 결혼문제”(박재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마지막에는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종합토론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조은식 기자

그 사건 후 내 이름은 '안산 단원고 2학년 이창현 엄마'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

“극소수지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들 모습 봐서 감사”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 옆 컨테이너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각 종단 별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종교시설이 있다. 이곳에서 개신교 예배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와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 16일에는 이 모임 시작의 주축이 됐다는 장신대 신학생들과 세월호 유가족 10여명, 이날 방문한 새터교회 교인들, 꾸준히 이 모임에 온다는 지역교회 목회자 몇몇이 참여했다.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화예요.”

그날 만나 인터뷰한 세월호 유가족에게 그의 이름을 묻자 그가 한 대답이다. 마음이 편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 개신교 예배모임의 대표로 있는 최순화 씨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와 교회와 사회에 많이 실망해 날이 선 그였다.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아직도 소녀 같은 ‘어머니’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최 씨는 다니던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10년을 다닌 교회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했었던 모양이다.

‘내 자식, 내 가정 잘 되는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는 똑같은 설교를 자식을 잃고서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회에 대해 무관심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천사 같고 아픈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저들은 모든 일이 잘되는 것 같고.... 그런데 개인이 다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감사하고, 은혜롭기만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 분위기도 그에게 힘들었던 것 같다. 크리스천 중 적지 않은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에 뒬던 250명 학생 중에 76명은 크리스천이라. 그래도 그나마 천국 가서 다행인데 나마지 아이들은 자よ 가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요....”

최순화 씨도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은 못했지만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줬다고 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자식을 잃은 고통에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세력으로 비춰지는 억울함까지 더해졌지만 교회는 그 보호마이 되어주지도 못했다.

“모르시는 분들은 세월호 리본만 봐도 교회에서 그걸 왜 하고 있느냐고 오히려 손가락질하셨어요. 세월호 리본 하나 했다고 교회에서 해임 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후원금이 끊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뉴스들이 ‘교회에서는 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해 9월부터는 교회들의 신청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 해외까지 가서 알렸어요.”

최순화 씨는 “정부와 싸우면서 말도 안



(두번째 줄 왼쪽에서 두번째)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 최순화씨가 예배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도회 페이스북

되는 정부의 태도를 많이 겪었고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교묘했고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지 그 현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사람들은 유가족들의 사정을 이해했다.

최순화 씨는 끝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 만큼 믿었기 때문에 더 실망도 커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버린 것도 아니예요. 분향소에서 목요일,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지금은 감사해요. 극소수지만요.”

광화문에서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예배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오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같이 서로 아니니까 힘이 된다”고 했다.

최순화 씨는 “정부와 싸우면서 말도 안

[김정남 암살] 맨손에 독문혀 공격·北외교관도 연루

김정남 암살을 직접 실행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은 독성 물질을 맨손에 묻혀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경찰이 추적 중인 북한 국적 인물 가운데에는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등도 포함되며 이번 암살극이 북한의 국가적 차원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에서는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여럿 포함됐다.

경찰은 우선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진만 공개했던 북한 국적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날 공개했다. 이들은 북한대사관 2동 서기관 현광성(44)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일(37)로 아직 말레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확실히 강조하며 북한대사관에 이들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원이 확인된 북한 국적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당국 소속 인물이 확인된 만큼 이번 사건과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이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인터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세한 범행 수법도 새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CCTV 등을 근거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29)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5)가 독극물이 묻은 헝겊이나 징검, 또는 독극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김정남에게 독극물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칼리드 청장은 이들이 ‘맨손(bare hands)으로 독극물을 김정남 얼굴에 문질렀다고 말했다. 남성 용의자가 아이샤와 흐엉에게 차례로 손에 액체를 빌려줬다는 것.

하석수 기자

“사이보수 반영하면 문재인 42.3%, 황교안 30.0%”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이른바 ‘사이 보수’ 현상을 반영해 최근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42.3%, 황교안 30.0%, 안철수 1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올 경우, 안희정 45.1%, 황교안 26.9%, 안철수 18.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재인-안철수 양자 구도에서는 문재인

43.6%, 안철수 35.6%로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황교안 대통령권대행 국무총리가 맞붙을 경우 문재인 53.6%, 황교안 33.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리얼미터가 13~14일 전국 성인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추가로 지난 대선 득표율을 가중치를 적용한 가공치다.

하석수 기자

월드비전

My KIDS

자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 웹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3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가드를 등록해주세요.

4 아동과 흰자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에 농군들이 아동의 변화를 보고해주세요.

5 3만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학습 및 미술에 허락을 줍니다.

6 아동후원은 할 아동의 배고픔을 냄이 꿈을 기우고 한 아동의 희망이 됩니다.

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말에 온전한 자(야고보서 3장 1-18절)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에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어야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어디를 가나 말, 말이 볼 물처럼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쇼 같은 데서 무슨 '페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할 말들이 그리 많은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온종일 토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뉴스'가 아니라 그냥 삼류 잡지에나 실릴 법한 온갖 루머와 억측들의 반복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 제관'을 다해 놓고서는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갖 종류의 포털사이트와 SNS들은 대중 전체의 언어문화를 갈수록 저질화 시키고 있습니다.

갖가지 신조어들과 맞춤법을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문장들은 그저 애교에 불과하고, 욕설이 거의 표준말처럼 자리잡아가며 '카더라'는 소식이 순간에 정설로 둔갑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정말이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말의 흉수' 아니 '말의 공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세상 사회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애말로 예로부터 '말쟁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으며, 교회야말로 어찌면 '가장 말 많은 단체'로 손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찌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교회 안에 온갖 '말로 인한 문제'가 팽배하고 있었음을 바로 본문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동명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 외에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별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헤롯 왕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으므로(행 12:2),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으며, 사도 바울 또한 그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갈 2:9)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아서도 더욱 유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일선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생기는 온갖 문제들을 더욱 부작으로 접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곧 '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교회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고 우리 각 신자가 '말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의 교훈을 통해 함께 살펴보자고 합니다.

1.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우선 '말을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교사의 직분이란 신자로서 정말 '사도할만한 큰 은사'(고전 12:31)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교사로 지칭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가 유대 사회는 '선생' 즉 '瞽比'를 극도로 존경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瞽比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과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바깥 사회에서는 되기도 어렵고 그 대신 존경은 많이 받는 것이라 4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와 같이 허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하는 곧 불이요 불의 세

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사르는 것이 자국 불에서 나느느라 7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 를 친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대로 자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친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 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서두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훈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를 뜻하는데, 초대교회 당시 '선지자'와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고전 12:28).

이들은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도들과 감독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던 시절에 평신도 중에서 교회의 성경공부도 인도하고 또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순회전도 활동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사의 직분이란 신자로서 정말 '사도할만한 큰 은사'(고전 12:31)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교사로 지칭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가 유대 사회는 '선생' 즉 '瞽比'를 극도로 존경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瞽比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과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바깥 사회에서는 되기도 어렵고 그 대신 존경은 많이 받는 것이라 4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와 같이 허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하는 곧 불이요 불의 세

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사르는 것이 자국 불에서 나느느라 7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 를 친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때문에 예루살렘교회의 저도자였던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너희는 아무나 선생 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서두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훈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절에서 신자에게는 그처럼 말 많이 하는 선생이 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게 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재미에 스스로 빠진" 선생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진정 훌륭한 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온전한 사람', 문자 그대로 '완전하다고 불릴만한 신자'요,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즉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야말로 온 몸의 지체를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데,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이 사실에 대한 예화들입니다.

"말"은 사람보다 훨씬 더 험센 짐승이지만 그 입에 "재갈"이라는 작은 도구 하나를 물리기만 하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며, "배"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것

이지만 그 방향의 조정은 오로지 후미에 붙은 아주 작은 "키"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몸 전체에 비해 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을 자랑한다"는 표현은 이 구절의 문맥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극히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만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제어할 수 있으면,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광풍 같은 위험을 자초하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는 그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혀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혀는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데, 그것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마치 "지옥 불"처럼 한 개인의 "삶의 수레바퀴" 전부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또한 혀는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자체입니다.

즉 통제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스스로 입을 닫는 법을 진짜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조심해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됨으로써, 실제로 교회 안에서 '참된 선생'으로 존경을 받고 세상 사회 앞에서도 칭송을 듣는 신앙인격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언변의 기술이 아니라 먼저 말을 아끼고 말을 적게 하는 법부터 익어야 합니다.

유창하게 연설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스스로 입을 닫는 법을 진짜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조심해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됨으로써, 실제로 교회 안에서 '참된 선생'으로 존경을 받고 세상 사회 앞에서도 칭송을 듣는 신앙인격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곧 '속에 있는 지혜를 선한 행실로써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13절 이하 18절의 말씀에 "13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나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득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독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말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라는 유명한 격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뛰어나오는 대로 말하기는 참 쉽지만, 그야말로 '엎지면 물'처럼 이미 입 밖으로 낸 말의 실수를 수습하기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신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조금 전에 이렇게 구구절절 강조했으니, 이제는 당연히 '그렇다면 어떤 말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말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지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 기억하는 것' 혹은 '인생 경험에 의한 노하우의 죽적' 따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은 지혜에 대하여 실제로 범상치 않은 정의를 내려 줍니다.

바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은유함으로'라는 말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 좀 안다고 교만에 빠진 사람은 '말만 많을'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직 겸손하게 '입을 닫고' 그 대신 '선행'으로써 자신의 속에 있는 지혜를 나타낼 줄 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하여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듯이 '말을 잘하는 것'이 결코 참된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행동을 선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은 이 전자와 후자를 극적으로 대조하며 비교해 줍니다.

'말만 잘하는 지혜'란 오로지 '땅 위의 것'일 뿐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지혜'만 가진 사람은 그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말로써 '자랑'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

그래서 그처럼 '말뿐인 지혜'는 "정육의 것" 즉 지금의 '말초신경적인 저질 지혜'이며 근본적으로 "귀신의 것" 즉 '마귀의 소리를 대안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말로만 똑똑한 체하는'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는 절로 '훈련과 모든 악한 일'이 끊임 새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함으로 보이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로 그 성도의 "마음 속"에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17절 아래에 보면 그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말'과 관계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행동'과 직결되는 내용뿐입니다.

참된 지혜는 우선 "성결"을 통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쇠를 멀리할 줄 아는' 삶을 가리키는데, 진정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라면 이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다툼이나 불화가 없이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본인의 대인관계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화 중에 있는 다른 교인들의 관계를 화목 시키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용"이란 '타인을 너그럽게 포용해 주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과로운 감정과 악한 형편과 힘든 상황들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양순"은 '순종적인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복종하고 또한 '교회의 관찰과 치리'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full of mercy and good fruits)라는 구절은

두 단어가 나오지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을 실제로 도와줌으로써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경"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말 많은'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오직 '지혜의 은유함'으로써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끝으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아까 10절부터 12절에 나왔던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늘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만을 견지하는 '선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화평의선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잘하는 교인'과 '선행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는 교회 안에서 온갖 '다툼'과 '불화'를 유발시키며 '원당'까지 만들기 심상이지만, 후자는 온 교우들을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화목한 지혜'들로 만드는 실로 아름다운 "의 열매"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써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하게 된다고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 앞에서 '말조심'을 그도록 강조했으니, 여기서는 이제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내용이 따라와야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흔한 교훈이 아니라 '진정 지혜로운 신자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남들 앞에서 보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실제로 차원 높게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성도 여러분, 국사단지 세계사단지 간에 훌륭한 성군이나 존경 받는 대통령이 '말 잘하는' 사람인 경우가 단 한 번

다시 말하자면, 신자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은 '말'이 아니라 바로 '선행'입니다.

실로 '선행일치'에 따른 바른 행실'이 야말로 참된 기독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요 가장 훌륭한 응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경향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하고 있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향아본다면, 그 분이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저 몸으로 열심히 충성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백이면 백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실'의 언어'로써 말할 줄 전혀 모르고 그저 '입술의 말'만 잘하는 교인들이 지상교회 안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자기 판에는 꽤 지혜롭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입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땅 위의 것', '정육의 것'만 떠들어대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사실은 바로 사람이 그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교인'의 입을 자신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귀신의 것'을 교회 안에 마음껏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혀의 바른 사용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말을 잘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직 '올바른 행동을 보이는' 데에 있습니다.

오직 진실한 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언어, 곧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입으로 내지 않고 오직 성도를 이름에 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선행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한다고 할수록 실상은 '말의 실수'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소위 '입바른 소리' 한다고 자처하는 교인일수록 평소에도 목사에게 가장 큰 곁치거리가 되며 결국 교회를 흡수하면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변'을 토하는 교인일수록 평소에도 목사에게 가장 큰 곁치거리가 되며 결국 교회를 흡수하면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말을 잘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직 '올바른 행동을 보이는' 데에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변'을 토하는 교인일수록 평소에도 목사에게 가장 큰 곁치거리가 되며 결국 교회를 흡수하면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 신자라면 '그저 경청하고 순종할' 뿐이지 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 말씀을 도중에 끊고 자기 소리를 높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스스로 '말을 제어하는 능력'부터 배우고 익히며, 또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진정 '지혜와 총명' 있는 선생, 말에 온전한 '선행일치'의 신자'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

이에도 있었습니까?

그런 위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위대한 업적'으로써 말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 안에는 그저 '말로만' 신자 노릇하는 교인들, '말로써'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직분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당회나 제직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재미에 빠진 장로나 집사들을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여러 한인교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자주 보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일수록 주로 우리나라에 있을 때 보수적 교단의 교회에 몸 담았던 교인, 그리고 신앙경력이 오래 된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스스로 교회생활에 대해 무슨 뛰어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교인 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늘 다른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고 진짜 교회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충성스러운 직분자치고 언변이 유창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변'을 토하는 교인일수록 평소에도 목사에게 가장 큰 곁치거리가 되며 결국 교회를 흡수하면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한다고 할수록 실상은 '말의 실수'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소위 '입바른 소리' 한다고 자처하는 교인일수록 평화롭게 반비례해서 '행동의 언어'는 결코 나타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말 잘하는 교인일수록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

이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착각 아니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주인공 소녀인 도로시가 "하수아비야, 너는 뇌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하수아비는 "글쎄요. 하지만 사람들도 자주 생각 없이 말을 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내뱉는 교인,

선행으로써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나타낼 줄은 모르고 그저 말만 앞세우는 교인, 그 무엇보다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라 고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말초신경적인 마귀의 소리만 온 교회 안에 퍼뜨리는 교인이 있습니다.

신자라 하면서도 그처럼 '뇌도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말의 실수'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에 가장 큰 '해'를 끼치며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까지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코 그런 신성모독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것을 진정 두려운 마음으로 의식하는 신자라면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자해야' 할 뿐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 신자라면 '그저 경청하고 순종할' 뿐이지 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 말씀을 도중에 끊고 자기 소리를 높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스스로 '말을 제어하는 능력'부터 배우고 익히며, 또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진정 '지혜와 총명' 있는 선생, 말에 온전한 '선행일치'의 신자'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

영사와 함께 있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벼렸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세,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도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쯤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차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티스트 이호재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분의 02-724-7801